

News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3월 '중순'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개인별 상환능력 등을 따져 청년, 소상공인 등 DSR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SR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생각이 같다"

돈풀기의 역습...은행 대출이자 부담 확 커진다

이데일리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중.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권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5%. 한달 전과 견줘 0.49%포인트, 작년 8월 말(2.86%)과 견주면 0.64%포인트 상승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신용대출 금리를 끌어올렸을 것으로 추정. 작년 연말부터 빚투, 등 대출 수요가 늘어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꺼냈다.

가계 빚 1726조 '사상 최대'...증가폭은 역대 세 번째

한국경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집계. 통계 작성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10조6000억원)은 4분기에만 20.2조 불어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19조5000억원)도 4분기에 24조2000억원 증가

뱅크 가고 बैं킹 온다...은행 생존 필살기 A to Z

머니투데이

2030년까지 전세계 은행의 80%가 폐업하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도 빅테크와 인터넷은행 등 '네오뱅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

손보사 CEO, 잇단 자사주 매입..주가 더 오를까?

이데일리

앞서 조영일 현대해상(001450) 사장이 장내 매수로 자사주 4280주를 주당 2만900원에 매입했다. 매입 규모는 8940만원
지난 22일에는 최영무 삼성화재(000810) 사장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이날 최 사장은 자사주 1000주를 주당 17만원에 매입했다. 총 1억7000만원 규모를 사들인 셈

은성수 발언 그대로 옮긴 靑... "공매도 금지 어려워"

데일리안

청와대는 23일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적발된다는 인식 만들 것"이라고 밝혀
해당 청원은 20만646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실손보험 이어... 車보험료 인상 카드도 '만지작'

이데일리

실손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자동차보험료도 함께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해율 하락하나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자동차 정비업체까지 나서 8%대 정비 요금 인상을 건의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받는 인상 압박은 커지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과소지급된 보험금 차액 돌려받아야"

아시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

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

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